

광주시 코로나 확산...밤9시 영업제한하나

거리두기 3단계 격상될까

광주시가 9일 민관 대책위원회를 열고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 조정 등 방역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일부 중 위험 시설에 집합 금지 행정 명령을 내린 '준 3단계' 조치에도 연일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 여부와 3만5000여명에 달하는 집합 금지·제한 대상 조정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민관 공동대책위원회는 9일 오후 1시 30분 광주시청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협의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유효하면서 일부 3단계를 차용한 행정 명령 기간이 10일

'준 3단계' 조치 10일 만료... 오늘 업종·분야별 조정 논의 종교시설·실내 체육시설 등 집합금지업소 7967곳 '축각'

정오 만료돼 후속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종교 시설, 실내 체육시설, 놀이공원, 게임장, 경로당, 목욕탕, 키즈카페, 견본 주택 등에는 집합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집합 금지 대상은 유흥주점 682개, 단란주점 459개, PC방 1078개, 노래연습장 1081개, 종교시설 1682개 등 모두 7967곳에 달한다. 일반 음식점 1만7782개, 카페 등 휴게 음식점 3349개, 학원부 4700여개 등 2만7777곳은 집합 제한 대

상이다.

방역 당국은 2만6568곳을 점검해 20곳을 고발하고 251곳을 행정 지도했다. 주말 야간에만 429곳을 점검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10곳을 적발하고 5일간 집합 금지 조치하기도 했다.

하지만 강화된 지침과 단속에도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는 점이 방역당국의 고민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 등 방역당국은 이날 수도권 '2.5 단계' 지침에 따라 시행 중인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프랜차이즈

매장 내 취식 금지 등 조치 등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업종·분야별 조정도 검토된다. 특히 PC방 업자들은 집단 감염이 없는 데도 일부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이유로 사실상 영업 중단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부에서 고위험 시설로 지정한 12종, 중위험 시설 중에서도 12종에 대해 집합 금지지역 상황"이라며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시설,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동선에 많이 포함된 시설 등 통계를 토대로 위험도를 재평가해 기준을 설정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정부 "의사국시 추가접수 고려안한다"

"의료계 구제요구 비합리적...거부 상황서 구제는 불가능"

제85회 의사국시시험 실기시험이 8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정부는 추가 접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미 한 차례 시험 일정을 연기했고 접수 기간도 추가로 연기한 바 있기 때문에 이 이상 추가적인 접수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현재 의대생들이 국가시험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 구제 요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면서 "대한의사협회(의협)나 전공의

단체는 정부에 무엇을 요구하기보다는 의대생들이 스스로 '학업에 복귀하고 시험을 치르겠다'고 입장을 바꾸게 하는 노력을 우선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달 31일 의사 국시 실시시험 시작을 하루 앞두고 시험을 이날로 1주일 연기했었다, 의대생 대다수는 재접수 기간에도 응시를 거부하면서 신청하지 않았다. 전날 0시 마감된 의사국시 실시시험에는 응시대상 3172명 중 14%인 446명만이 신청했다.

이에 의협 등 의료계에서는 의대생들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구제 대책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북구가 감염병 옮기는 지역입니까?"

광주시 '방역중점관리지역' 지정에 북구 지역민들 분통
북구청 "상의 없었다...전례없는 조치 부정적 '낙인'일 뿐"

"북구 주민들이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어떻게 하루 아침에 감염병을 옮기는 지역으로 낙인 찍을 수가 있습니까?"

광주시가 북구를 '코로나19 방역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북구 지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광주시의 방역 행정 실패를 '북구지역민의 탓'으로 돌리려는 꼴수가 아니냐는 것이다.

8일 광주시와 북구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일 북구를 '방역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예산과 인력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날 현재 계획만 발표했을 뿐 구체적인 예산지원 계획조차 없는 상태다.

이와 관련, 박향 광주시 복지건강국장

은 "예산지원은 앞으로 북구와 조율해 결정하고, 인력지원도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구는 다소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명을 요구한 북구청의 한 관계자는 "구청과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갑자기 북구를 집중 지원하겠다며 '방역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더니, 추후 지원 규모 등을 결정하겠다는 게 행정절차상 말이 되느냐"면서 "특히 광주는 편의상 자치구로 구분했을 뿐 하나의 생활권이나 마천각 지역이다. 북구만 코로나19 위험지역처럼 지정한 것에 대해 지역민의 항의 전화 등이 빗발치고 있다"며 분노를 나타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규모 확산 사태가 있었던 대구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전례가

없는 조치"라면서 "북구만 지정하면 부정적인 '낙인 효과' 외에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동안 방역 최일선에서 땀 흘려온 북구청 공무원들도 분노감을 표출하고 있다. 그동안 북구는 구조상 타 자치구보다 코로나19 집단발생 가능성이 높은 데도, 추가 방역 예산이나 인력 등을 지원하지 않다가 갑자기 '방역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들고 나온 배경이 의심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실제 북구는 전국적으로 대규모 집단 감염사태를 불러온 신천지를 비롯해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연관한 광주사랑교회, 성림침례교회 등 대형 종교시설이 밀집해 있는 탓에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때문에 북구청 직원들은 지난 2월 코로나19 첫 발생 후 휴일 등도 반납한 채 쉬지 않는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동안 북구청이 직접 관리 감독한 누적 격리자와 능동감시자만 1만4514명에 이르고, 구청 16개 부서에서 직접 나선 방역활동도 2만5000여회나 된다.

북구청 직원들은 "그 어느 자치단체보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방역활동을 해왔는데, 광주시의 관리지역 지정으로 그동안의 방역 활동이 물거품이 된 듯한 느낌"이라며 "지역 내 특정구역의 상황이 심각하다면 그냥 집중 지원을 하면 되지, 굳이 '방역 중점관리지역'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사전 상의조차 없이 북구를 지목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광주시는 지난 7일 해당 브리핑을 앞두고 문인 북구청장을 배석토록 했지만, 관련 내용을 사전에 조율하기는 커녕 의견조차 듣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북구청 측은 "광주시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답변하기 힘들다"면서도 "사전에 방역 중점관리지역 지정에 대해 조율하거나 들은 바는 없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8일 오후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 본관에서 의료진이 걸음을 옮기고 있다. 이날 전남대·조선대·광주기독병원 등 광주 지역 대형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이 업무 복귀 거부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전공의들 진료 현장으로 빨리 복귀해야"

전남대·조선대·광주기독병원장 입장문 발표

광주 지역 대형병원들이 전공의들의 조속한 업무 복귀를 촉구했다.

전남대·조선대·광주기독병원장은 8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이제 단체 행동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으로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지역민들이 제시한 진료받지 못해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미래를 결정 짓는 정책을 수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고통받는 현재의 환자들을 외면하는 것은 가장 뼈아픈 일로 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진은 여러분의 헌신을 알고 있고 여러분과 앞으로도 뜻을 함께 할 것

이라며 "정책의 원점 재검토와 의대생 국가고시 진행을 계속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병원장들은 "코로나19 상황 속에 의료진의 피로가 커지고 있다.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는 진료 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하고 우리 의료계가 단합된 모습으로 난관을 극복하자"고 촉구했다.

대한전공의협회의 비상대책위원회는 8일부터 업무 복귀를 결정해 광주보훈·국립나주·순천성가톨릭병원 전공의들은 업무에 복귀했다. 하지만 전남대·조선대·광주기독병원 전공의들은 복귀를 보류하고 구성원들과 논의 중이다.

/연합뉴스

'질병관리청' 승격...초대청장에 정은경 본부장

복지부 2차관 강도태·여가부 차관 김경선 발탁

질병관리본부에서 '청(廳)'으로 승격된 질병관리청의 초대 청장으로 광주 출신의 코로나 영웅으로 평가받는 정은경(사진) 질병관리본부장이 내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질병관리본부에서 승격된 질병관리청장으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신설된 보건복지부 제2차관에 강도태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을, 여성가족부 차관에는 김경선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발탁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정 신임 청장은 광주 전남여고와 서울대 의학과를 졸업한 재원으로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 긴급상황센터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방역 최일선에서 왔다.

문 대통령의 이번 인선은 코로나19 방역을 책임져온 정 청장의 노고를 격려하는 동시에 방역 대책의 연속성을 갖고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주력해 달라는 당부를 담

은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야당 대표로서 질병관리본부를 찾아 당시 질병예방센터장이었던 정 청장의 보고를 받았고, 정 청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질병관리본부장에 올랐다. 질병관리청장은 질병관리본부장과 같은 차관급인긴 하지만, 질병관리청이 독립된 행정기관으로 승격된 만큼 정 청장의 실질적 권한은



한층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청 승격에 대해 '감염병 대응체계에 있어 획기적 진전'이라며 정 청장의 역할을 기대감을 드러냈다. 강 대변인은 "정 본부장은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방역 모범국가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강도태 신임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고려대 무역학과와 행정 35회 출신으로,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등 보건 분야 요직을 두루 거친 관료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서울대 영문학과와 행정 35회 출신으로,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장, 청년여성고용정책관, 고령사회인력정책관 등을 지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사·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수수료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니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풍수·사주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강 (6개월 과정)

- 일 시 : 2020. 9. 15(화) 오후 7시
- 장 소 : 심미온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산수오거리 → 무등산 방향 입구 우측 2층)
- 수강료 : 풍수+사주 15만원(매월)

공개강좌 (무료)

- 일 시 : 2020. 9. 8(화) 오후 7시.
- 장 소 : 상동(심미온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 상 : 누구나 (선착순 00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전기비법 대 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백명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교
- 사업(정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온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 010-2246-1508

땅 매매

화순 도곡 신덕리 계획관리지역 임야 20530㎡ 야산·축사허가 및 지붕 위 태양광 설치 가능 선로확보가 14억원(조정가)

- ▶ 남구 대촌 지석동 자연녹지 답1003.5㎡ (대촌산업단지4차선 도로점, 아파트 2천세대 예정) 29억원
- ▶ 남구 대촌 양과동 답1857㎡ 2억8천5백만원
- ▶ 남구 대촌 양촌동 답3875㎡ 3억5천5백만원
- ▶ 광산 수완동 상업용 4층 건물 대지 480㎡, 연 998㎡, 엘리베이터 아파트 밑지정지역 보 2억9천9천원, 월 1640만원, 용 12억원 매 42억원
- ▶ 나주 남평 교촌리 생산녹지 2585㎡ 3억5천5백만원

대한공인중개사사무소(전국) 010-6683-3274
광주광역시 남구 대촌 포충로 606-2

산행안내

9월12일(토)
▶ 광주호산회 9월12일(토) 합천 남산 제1봉 해인사 소리길 트레킹,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 출발 06:30, 롯데백화점 07:00, 예술회관 후문 07:15 * 다음카페 광주호산회 ☎ 010 4621 2166, 010 6702 9796

9월19일(토)
▶ 광주주당산악회 9월 19일(토) 충북 포함산·만수봉·용암산, 봉선동 롯데마트앞 06:10, 진원동식자재마트앞 06:20, 연주체육관 06:30, 한국병원 앞 06:40, 문예회관정문 06:50, 비엔날레주차장입구 07:00 * 다음카페 광주주당산악회 ☎ 010 6294 2678, 010 3620 2284

▶ 광주호산회 9월19일(토) 전북 순창, 남원, 송대봉, 체계산 출렁다리,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 출발 06:30, 롯데백화점 07:00, 예술회관 후문 07:15 * 다음카페 광주호산회 ☎ 010 4621 2166, 010 6702 9796

9월25일(금)
▶ 광주호산회 9월25일(금) 무

분할합병에 관한 공고

주식회사 금윤이앤씨(갑)와 회광전력공사 주식회사(을)는 2020년 09월 08일 개회된 각 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갑'의 전기공사업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을'과 분할합병하고, '갑'과 '을'은 존속하기로 결의하며, 상법 제530조의 9 제3항의 결의 절차를 밟아 출자재산 이외의 채무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분할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 익일로부터 1개월 내에 본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예 공고함.

2020년 09월 09일

양도인 '갑'
상 호 : 주식회사 금윤이앤씨
대표이사 김민지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금호로 50, 1층(운양동)
양수인 '을'
상 호 : 회광전력공사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창기
주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삼남길 34-65

분할 합병 공고 (채권자 이의 및 주권제출 공고)

주식회사 광원전력(갑)과 주식회사 하나전기(을)는 2020년 09월 08일 각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갑'은 '을'의 재산(영업)의 일부(전기공사업, 등록번호 : 전남-0166920)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에 대한 (원)의 자산 및 부채등 권리의 유 일체를 (갑)이 승계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회사들의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각 회사의 주권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본 공고 게재 익일로부터 1개월 내에 본회(회사)에 이의 및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예 공고 및 회고합니다.

2020년 09월 09일

* '갑' 주식회사 광원전력 전라남도 담양군 대천면 추성로 511 사내이사 차은영

* '을' 주식회사 하나전기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도개길 15-75 대표이사 박진수

박2일 설악산 대청봉 천불동계곡 B코스 울산바위 권금성케이블카,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 출발 22:00, 롯데백화점 22:30, 예술회관 후문 22:45 * 다음카페 광주호산회 ☎ 010 4621 2166, 010 6702 9796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은 길 68년

光州日報

신문구독 (062)227-9600
예향구독 (062)220-0551
광고문의 (062)220-0550